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전법도생, 불자의 사명…부루나 존자처럼 전법을”

12면에 이어

전법제일 부루나의 후예

은사 지시로 군승 임관해 포교 매진
4만 6천명 수계… 불교 인재 양성해
“구국성사 가르침 이어 전법 나서야”



자광 대종사의 논산훈련소 법당 호국 연무사 건립 공덕을 기리기 위한 비문 제막식.


2019년 동국대 직접 고용 미화근로자 직원증 수여식. 자광 대종사의 상생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다.

자광 대종사는 다종교 사회의 종교화합에 대한 해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연기(緣起)의 법칙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니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 간 갈등은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고등종교는 황금률(黃金律)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자비를,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업중생(共業衆生)임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치를 몸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다종교 사회의 종교화합에 대한 해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월남전 참전했다가 베트콩들에게 붙잡혀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당시 저는 베트콩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함으로써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삼청교육대에서 기간병과 교육생들이 총기를 들고 대치했을 때도 저는 ‘부모님 은혜’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반목하고 있는 두 집단 구성원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총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처럼 대립과 반목의 상황을 원융과 화쟁의 상황으로 유도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와 너는 다르지 않습니다.”

원융 · 화쟁 실천…군포교 레전드

“연기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보는 자는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 자광 대종사가 내놓는 궁극적인 상생의 가르침이다.

원융(圓融)과 화쟁(和諍)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온 자광 대종사는 5사단 군종 참모로 재직할 당시 군대 안에 교회를 짓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군종 참모로 부임한 직후 자광 대종사는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고 방치된 교회 건물을 발견하고서 한경직 목사를 찾아가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을 위해 교회를 지어 달라”고 간청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경직 목사가 교회를 완공함으로써 부대 장병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자광 대종사가 종교화합에 앞장섰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다. 자광 대종사의 행장은 전법(傳法)과 포교(布教)라는 두 글자로 귀결된다. 대종사가 수계법회를 통해 계를 준 장병이 4만6000여 명에 달하고, 장병을 상대로 한 법회가 4600여 회에 이른다. 다수의 군법당이 대종사의 원력에 의해 건립됐다. 자광 대종사는 “불자의 기본 사명은 전법도생(傳法度生)”이라고 역설했다.

“부루나 존자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 대중을 위해 설법하여 수많은 사람을 교화했습니다. 부루나 존자는 상대의 주장을 잘 듣고서 차분하게 지혜를 일깨워줬습니다. 말년에 부루나 존자는 자신의 고향인 수로나국에 부처님의 법음(法音)이 전해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수로나국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성격이 거칠었습니다. 전법의 길을 나서겠다는 부루나 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수로나국 사람들이 칼로 그대를 죽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물었고, 부루나 존자는 ‘수로나국 사람들이 나를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큰 공덕을 짓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변방의 포교를 위해 목숨 걸고서 의연하게 길을 나서는 부루나 존자의 일화에서 우리는 전법도생만이 불교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불교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스님들이 도성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승병을 조직해서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산·사명·영규 대사입니다. 이 스님들의 활약은 호국(護國)을 넘어선 구국(救國)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불자들은 구국성사들의 보살행을 귀감삼아서 적극적으로 전법도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광 대종사는 이어서 사회적 약자에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불자의 길임을 강조했다.

“제가 동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 미화원들이 장기간 파업을 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저는 미화원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애환을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직원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다니시는 미화원 분들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무명세계 비추는 마음의 등불

자광 대종사는 인터뷰 말미에 필자에게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모든 종교의 최종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苦)의 해결입니다. 불교적인 행복은 세속적인 행복과는 다릅니다. 뼈다귀를 문 개의 우화가 있습니다. 개는 뼈다귀를 물고 가다가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는 물에 비친 게 자신인줄 모르고 짖어대다가 그만 뼈다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해지는 게 인생사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광 대종사는 이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국이나 지옥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생을 저지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바로 지옥이고,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치고 착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천국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살도록 하는 것도, 천국에 살도록 하는 것도 마음이 꾸미는 일입니다. 백운 스님의 ‘무심가(無心歌)’를 보면 마음의 작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윽고 자광 대종사는 ‘무심가’를 나지막하게 읊조렸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버리되 마음은 비우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비우되 경계는 버리지 않네.
마음을 비우면 경계는 저절로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여여(如如)해지리니
이것을 무심진종(無心眞宗)이라고 하느니라.

–백운 스님의 ‘무심가’中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필자의 입에서는 ‘무심가’와 심상(心象)이 유사한 한 편의 게송이 떠올랐다. 그 게송은 다름 아닌 자광 대종사가 지은 〈알았네(覺)〉였다. 고려의 태고 보우 국사는 ‘취모검(吹毛劍)’이라는 선시에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일컬어 “일천 성현들의 경계 밖에서 소요 자재하는데 달빛에 비친 갈대꽃이 눈처럼 새하얗다”고 비유했다.

자광 대종사의 〈알았네(覺)〉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심왕(心王)인 동시에 만물을 생장시키는 바탕이 되는 심지(心地)임을 밝힌 ‘깨침의 소리’이다. 마음은 실체가 없으되 한시도 쉬지 않고 작용을 하니 ‘꺼지지 않는 등불(無盡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이라는 등불은 무명(無明)의 세계를 환히 비춰준다. 또한, 마음은 ‘뿌리 없는 나무(無根樹)’와 같아서 영겁토록 시들지 않고 꽃을 피우고, ‘밑 없는 발우(無底鉢)’와 같아서 광대무변한 허공계(虛空界)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평자들이 자광 대종사의 〈알았네(覺)〉를 이 시대의 오도송(悟道頌)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불교에 정통한 선지식이 오랜 수행 끝에 마음의 경계를 시의 율격에 맞춰 풀어놓았으니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쉬우나 그 의미를 음미해서 보면 만상이 들락거리되 각양각색을 통합하는 진법계의 실상이 아닐 수 없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모양도 색깔도 부피도 무게도 없는 마음
한계가 없으니 우주를 싸고 남았고
가고 옴이 없으니 항상 존재하고
무게가 없으니 우주를 짊어졌고
성내고 기뻐함이 없으니 항상 평화롭고
색깔이 없으니 각양각색을 통합하였네.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시간과 공간이 나왔고
중생과 부처가 나왔고
천당과 지옥이 나왔으니
과연 삼라만상을 창조하였도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진법계의 실상이여
만상이 들락거리는구나.

– 자광 대종사의 ‘알았네(覺)’

유응오 / 작가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일본 교토
벗꽃여행 4일
3월25일 출발~3월28일 도착(3박4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벗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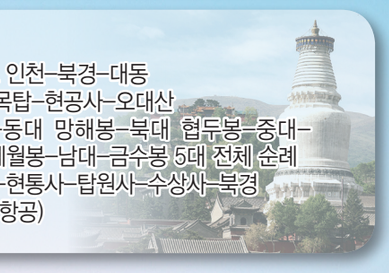
인도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2월26일 출발~3월07일 도착(11일 일정)
동참금 | 30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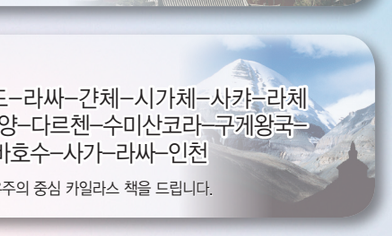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1차 2024년 4월12일~4월21일(9박10일)
2차 2024년 5월17일~5월26일(9박1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 20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